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0 -

“보건증 발급비용,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공약 발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의료원에서 발급... 비용 부담 10배까지 커져
- 돌봄·가사노동자 포함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무료화, 발급 지정병원 확대 및 인터넷 발급시스템 마련, 돌봄직종 검진과목 표준화 등 제도 개선 공약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공약 80**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1. 돌봄·가사노동자도 포함 발급비용 무료화
2. 발급 지정병원 확대,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3. 산모·아이·가사돌보미 등 검진과목 표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8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 등을 지원해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종 음식점 혹은 식품 등을 가공·제조·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사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

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를 말한다. 매년 1회 이상 보건소나 지정병원, 일반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보건소에서 발급받고, 3천 원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간의료원에서 발급받게 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민간의료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약 25,000원에서 70,000원으로, 보건소 발급 비용의 약 10배 혹은 그 이상에 이르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건강진단결과서 의무 발급이 필요한 국민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이 식품위생업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직종 종사자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그밖에도 기존의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인터넷 발급이 민간의료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결과서 발급 신청자가 결과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4~7일 후 병원을 재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따른다.

이 후보는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의 개선으로 관련 직종 종사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의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돌봄·가사노동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산모·아이·가사돌보미 등 돌봄직종에 적합한 검진과목을 표준화하여 돌봄종사자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으로 기업의 건강진단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덜고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참 고 자 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개요

○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필수 대상

-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유흥업소,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가공·제조·조리 등을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사원 해당

○ 검사항목 : 건강검진결과서 기본 검사항목

업소형태	업소 종류	검사 항목
일반음식점	식당,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검사
단체급식소	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검사
유흥업소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돌봄노동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의무 대상

○ 돌봄노동자 :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 바우처노동자, 민간 재가돌봄노동자 등

돌봄노동자	규정	검진 항목	횟수
(정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침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연1회
아이돌봄서비스	지침	(구)보건증 검사항목에 B형간염 검사 추가	연1회
(민간)가사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내부규정	(구)보건증 검사항목에 B형간염 추가	연1회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침	정신질환,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 검사 추가	연1회
재가요양보호사	지침	직장인 건강검진 외 결핵검진 필수 포함	연1회

○ 발급 방법 :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G_health / 정부24시), 보건소 및 병원에서 가능 *보건소, 지정병원 외 일반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인터넷 발급 안 됨(직접 내원 수령)

○ 발급 비용 : 보건소 오프라인 방문 시 보건소 검사항목에 따라 수수료 3천~6천원 일반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10,000원 ~ 35,000원 발생)

○ 발급비 지원 사례

※ 지자체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업주 및 그 종사자만 일반병원에서 발급시 본인부담금 3천원을 제외하고 최대 17,000원까지 차액 지원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강보험 한시 지원 (의료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비용 12,000원)

- 지원대상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만 지원

- 1차 : 2021.8.2.부터 2021.12.31.

- 2차 : 2021.8.2.부터 **2022.6.30.** 진료 분까지 **한시적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 진단서 발급비용 없음(제증명 발급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함)

○ 미이행시 과태료 :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근무하거나 업소를 운영할 경우,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이 단계별로 부과

○ 유효기간 : 1년 기준, 재발급 시 일반적 수수료는 1,500원이며 보건소마다 차이 (단,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 소요예산 : 돌봄종사자 약 100만 × 1만원 = 100억

외식업종사자 약 120만 × 1만원 = 120억

○ 참고 : (윤석열 후보) ‘석열씨의 심쿵약속’ 16번째 시리즈 공약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무료화”

- 매년 발급 받아야하는 **식품, 미용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필수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필수서류 구비로 인한 부담과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 **천차만별인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의 절차 통일**

■ **발급 소요비용 전액 무료화**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 (이·미용·택시회사 종사자 제외)

- 채용 건강검진의 대상 : 국가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미용사** 등)

Q & A

[Q] 식품·외식업종 외 민간 아이돌보미나 아르바이트생도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가사노동자들이나 아이돌보미들은 직접 가정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소비자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산모·아이돌봄) 사업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의무이며, 민간의 가사돌봄, 아이돌봄에서도 필수화 되고 있음

- 최근에는 PC방에서도 음식을 판매하여 PC방, 카페, 편의점 등에도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Q]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면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비용지원이 필요한가요?

[A]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과중되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보건소 발급 시 발급비용은 3천원이지만 일반병원 발급 시에는 1만원~3만5천원까지 기관마다 비용차이가 큼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건강보험을 한시적(2022.6.30.까지) 으로 적용하고 있음

Q] 건강진단결과서는 현재 보건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고 출력할 수 있는 발급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발급체계 개선이 필요한가요?

[A] - 공공보건포털 (G_health / 정부24시)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사립병원은 제외되고 있음.

- 온라인 발급 서비스 불가시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이용이 쉽지 않으며, 빠른 발급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비싼 비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함.

-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시 신청유형은 식품분야 종사자, 유흥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돌봄종사자의 이용이 번거롭게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Q] 건강진단결과서는 기본 검사항목으로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학교급식조리사 세균성 이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 에이즈와 성병 검사 추가)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 과목 표준화가 필요한가요?

[A] - 돌봄노동자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경우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기본 검진항목만 검사하는데 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는 B형간염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정신질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직장인 건강검진 외에도 결핵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